

# 늘푸른 물결

통권 288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을 권해 주세요

9 2023



## 석탄 말고 햇빛, 원전 대신 바람!

8월 22일 에너지의날을 맞아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함께 기후행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탈석탄, 탈원전 외치고 재생에너지로 바꾸자며 시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오염수 방류 규탄, 탈핵 탈석탄 에너지 전환 촉구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집중행동 참여



가습기 살균제 참사 12주년 맞아 1인 시위

- ▶ 발행일 2023. 9. 10.
- ▶ 발행인 손창원, 송영주
- ▶ 편집인 최오상
- ▶ 편집위원 팽말숙, 김정진, 유형민, 박희선, 임아연, 박은정, 조순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j,ekfem.or.kr

- 3 이달의 시  
| 홍범도 장군의 절규 / 이동순
- 4 지역환경초점1  
| 오염수 방류 규탄, 탈핵 탈석탄 에너지 전환 촉구
- 6 지역환경초점2  
|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집중행동 참여
- 8 지역환경초점3  
| 페놀 수백만톤 대기 방출한 서산 현대오일뱅크, 지역사회 충격
- 9 지역환경초점4  
| 석문간척지에 양돈 축산단지 조성 추진
- 10 지역환경초점5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알려진 지 12주년 맞아 1인 시위
- 11 지역환경단신1  
| 해나루보호작업장 환경교육 진행
- 12 지역환경단신2  
|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 제소하라"
- 13 전국환경초점1  
| '탈석탄법' 국회 발의...통과 즉시 삼척 발전소 허가 취소 가능
- 14 전국환경초점2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 개최 무산
- 15 8월 살림살이
- 16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궁금증 해결  
| 그것이 알고 싶다! 과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도 안전한가?
- 20 8월 활동소식
- 22 9월 주요사업 계획
-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 24 광고



# 홍범도 장군의 절규

이 동 순



그토록 오매불망  
나 돌아가리라 했던만  
막상 와본 한국은  
내가 그리던 조국이 아니었네  
그래도 마음 붙이고  
내 고향 땅이라 여겼건만  
날마다 나를 비웃고 욕하는 곳  
이곳은 아닐세 전혀 아닐세  
왜 나를 친일매국노 밑에 묻었는가  
그놈은 내 무덤 위에서  
종일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 하네  
어찌 국립묘지에 그런 놈들이 있는가  
그래도 그냥 마음 붙이고  
하루 하루 견디며 지내려 했던만  
오늘은 뜬금없이 내 동상을  
들러와서 옮긴다고 저토록 요란일세  
야 이놈들아  
내가 언제 내 동상 세워달라 했었나  
왜 너희들 마음대로 세워놓고  
왜 너희들 마음대로 세워놓고  
또 그걸 철거한다고 이 난리인가

내가 오지 말았어야 할 곳을 왔네  
나, 지금 당장 보내주게  
원래 묻혔던 곳으로 돌려보내주게  
나, 어서 되돌아가고 싶네  
그곳도 연해주에 머물다가  
함부로 강제이주 되어 끌려와 살던  
남의 나라 낯선 땅이지만  
나, 거기로 돌아가려네  
이런 수모와 멸시 당하면서  
나, 더 이상 여기 있고싶지 않네  
그토록 그리던 내 조국강토가  
언제부터 이토록 왜놈의 땅이 되었나  
해방조국은 허울 뿐  
어딜 가나 왜놈들로 넘쳐나네  
언제나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나라  
나, 더 이상 견딜 수 없네  
내 동상을 창고에 가두지 말고  
내 뼈를 다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로 보내주게  
나 기다리는 고려인들께 가려네

작가소개

시인 이동순

영남대 명예교수가 SNS에 발표했다. 그러나 2일부터 '혐오 발언'으로 규정, 삭제 조치를 내린 사실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 이 시를 배포하는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 오염수 방류 규탄, 탈핵 탈석탄 에너지 전환 촉구

## 당진환경연합, 제20회 에너지의 날 맞이 당진기후행동



이날 에너지의 날 기념 당진기후행동으로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참여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송영주)이 에너지의 날을 기념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규탄하고 석탄발전과 핵발전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촉구하는 기후행동을 진행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제20회 에너지의 날을 맞

아 지난 22일 16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6시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수청동 터미널 입구에서 '더러운 석탄, 위험한 핵 대신 햇빛과 바람으로'를 주제로 탈석탄, 탈핵,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며 위험한 핵발전으로 발생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규탄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손창원 공동의장은 "일본 정부가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정했는데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옹호하는데 혈세를 쓰고 있다"고 정부의 대응을 규탄했다.

김정진 사무국장은 "핵산업계는 원전이 안전하다고 강변하지만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핵발전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문제도 결국 안전을 맹신하며 위험한 핵발전의 결과"라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범인 더러운 석탄발전,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

는 위험한 핵발전을 이제 중단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햇빛과 바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일정 발표에 따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8월 23일 충남도청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과 8월 26일(토) 서울에서 개최될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행동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활동을 펼쳐갈 계획이다.

[글 : 당진신문]

# 매주 버스터미널에서 오염수 저지 캠페인 진행

26일, 서울에서 오염수 방류 중단 범국민 대회 참가



지난 8월 12일 전국행동에 참여한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12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행동'과 26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안전한 바다를 지키는 우리의 합성'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프레스센터 옆 도로에서 개최한 12일 전국행동에 당진환경운동연합은 회원과 가족 15명이 참여해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과 함께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의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범국민대회에는 8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하고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했다. 범국민대회를 마친 후에는 서울시청 옆에서 용산 대통령직무실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외쳤다.

또한 5월부터 시작된 매주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



지난 8월 16일 전국행동에 참여한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



지난 8월 8일 당진 터미널에서 열린 12차 오염수 저지 캠페인에 참여한 회원들

기 저지 캠페인은 8월에도 이어졌다. 8월 8일과 14일, 22일에 수창동 버스터미널 입구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며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알렸다.

캠페인에서 손창원 공동의장은 "일본이 8월말이나 9월초에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당초 7월에 방류하겠다고 밝혔던 우리 국민들과 전세계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져 방류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다"며 "비록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기 급급하지만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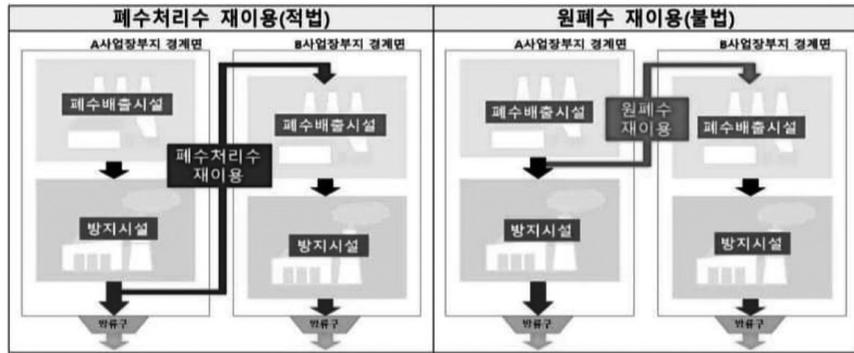
들의 힘으로 강력한 반대 여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자"고 밝혔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8일 이후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캠페인과 범국민 서명운동을 매주 1회 진행해오고 있으며 8월에 이어 9월에도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서울에서 개최되는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글 : 사무국]

## 폐놀 수백만톤 대기 방출한 서산 현대오일뱅크, 지역사회 충격

검찰,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등 8명 기소... “비윤리적인 기업 운영 행태 규탄”



현대오일뱅크는 방지사설을 거치지 않아 폐놀 등 성분이 함유된 폐수를 ‘공업용수 재이용’을 빙자하여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등으로 불법 배출하거나 현대오일뱅크 가스세정시설의 냉각수로 사용하여 대기중으로 불법 배출했다.

충남 서산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이 유해 물질인 폐놀 수백만 톤을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월 폐수 무단 방류로 환경부로부터 1,509억 원의 과태료를 사전 예고 받은 바 있다. 지역 사회는 현대오일뱅크의 비윤리적인 기업 운영 행태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등 8명을 폐수 및 유해물질 무단 배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년 동안 유해물질인 폐놀을 포함한 폐수 130만 톤을 증발시켜 가스 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이에 대해 오일뱅크 측은 검찰에 '자회사로 폐수를 보내긴 보냈지만, 무단으로 배출한 것이 아니라 재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적'이라며 맞섰다. 또 '폐놀도 중화시켜 대기오염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 환경망 구축에 투자하기로 해놓고 맹독 물질 계속 방류

지역사회는 엄청난 배출 규모에 주민 건강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한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대기중으로 배출한 것이어서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이 있는 서산뿐 아니라 인근 태안과 당진, 예산 등 충남 전역은 물론 경기지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월 환경부로부터 대죽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은 폐수 33만 톤을 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배출, 물환경보전위반으로 1509억 원의 과태료를 사전 예고했다. (중략)

게다가 서산 대산공단에서는 지난 2019년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가 발생해 대기업 4사가 안전 및 환경망 구축에 8,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공소내용을 보면 현대오일뱅크는 이후에도 계속 폐수와 맹독 물질을 방류,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 생략)

[출처: 오마이뉴스 일부 발췌]

## 석문간척지에 양돈 축산단지 조성 추진

충청남도가 석문간척지에 양돈축산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축 방역과 경제성, 축산단지 규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석문간척지·부사간척지에 축산단지 조성 추진

지난 18일 충청남도청에서 '축산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 융복합 방안 설명회'가 열렸다. (중략) 이 사업은 중앙 제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해 지역별로 산재한 양돈농가를 축산단지로 이동시켜 축산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당진의 석문간척지와 보령·서천의 부사간척지로, 각각 30만 두의 돼지를 기를 수 있는 규모로 추진할 방침이다. 스마트 축산단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축사와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도축장, 가공장 등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전북대·공주대·세민환경기술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간척지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2월까지 간척지 활용 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등을 살피고 간척지 활용 사업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중략)

### “취지 공감하지만 우려 사안 보완 필요”

하지만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의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은호 대한한돈협회 당진시지부장은 (중략)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확산되기 쉽고, 일정 구역 내에 있는 모든 가축을 살처분해야 한다”며 “방역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화 시설을 갖춘 스마트 축사로 지을 경우 기존 축사 비용보다 최소 2배 이상 소요되는데, 열악한 축산농가가 많아 축산단지로 이전해야 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30만 두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일었다. 당진시 전체 돼지 사육두수는 34만 두로, 30만 두 규모의 축산단지를 모두 채우지 못할 경우 천안·아산·홍성 등 인근에서 양돈장을 유치해야 한다. 이 경우 당진지역의 환경 부하가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중략)

한편 충남도는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자문 내용을 검토해 연구용역에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한 뒤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당진시대 일부 발췌]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알려진 지 12주년 맞아 1인 시위

끝나지 않은 참사 7월말까지 피해신고자 중 1,821명 사망



지난 8월 3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12주기 1인시위를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진행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처음으로 알려진 지 12년째 되는 8월 31일을 맞아 당진환경운동연합과 에코생협 당진점이 11시부터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2011년 8월 31일 원인불명 산모사망사건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졌고 12년째인 올해 7월 말까지 피해신고자 7854명 중 1821명이 사망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다.

2021년 가해기업과 피해자단체가 배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정안이 나왔지만 참사에 가장 책임이 큰 옥시와 애경이 조정안을 거부한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당진환경운동연합과 에코생협 당진점에서는 잊혀져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환기하고 가해 살인기업에 대한 유죄판결과 가해기업 배보상 조정안 수용, 가습기 살균제 폐암 관련성 인정,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 규제 완화 철회 등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12주년을 맞아 가해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 인천, 부산, 울산, 포항, 여수, 광양, 진주, 마산, 사천 등 전국 11곳에서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 등이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이날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에서는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폐암 피해 인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중 폐암 발병 의심 사례는 200명이 넘고 폐암 발병율도 일반인구에 비해 50배 가까이 높은 상황임에도 폐암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폐암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고 신속심사 대상에 폐암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출처: 사무국]

# 해나루보호작업장 환경교육 진행

17일 자원순환, 24일 생물다양성 교육



▲ 지난 17일 '자원순환'을 주제로 박은정 사무차장이 강사로 참여했다.

◀ 지난 24일은 김정진 사무국장이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을 주제로 참여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미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해나루보호작업장을 방문해 두 차례에 걸쳐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17일 첫 번째 환경교육은 '자원순환'을 주제로 박은정 사무차장이 강사로 참여해 자원순환의 필요성과 쓰레기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알리고 쓰레기 분리배출을 체험하는 환경교육을 진행했다.

24일 진행된 두 번째 환경교육은 김정진 사무국장이 강사로 참여해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을 주제로 멸종해가는 동식물을 소개하고 생물다양성 유지의 필요성과 생태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펼쳤다.

[글: 사무국]

#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 제소하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환경운동연합, 일본과 정부 강력 규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환경운동연합은 23일, 충남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초유의 사태”라며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는 것은 바다 생태계와 전 세계 인류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핵 테러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탱크에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을 밝힌 적이 한번도 없다. 또한 2차 처리를 한다고 해도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잔류할지 모른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옆집에 쓰레기통을 둘 곳이 없어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원에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한다. 다만, 냄새도 나지 않고 벌

레도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서 버릴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개시하겠다는 것은 이와 같다. 이것은 과학적 근거를 댈 필요도 없이 상식과 도덕적 판단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눈과 귀를 막은 채 국민들의 우려섞인 목소리는 듣지 않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옹호하는 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 생략)

[출처 : 오마이뉴스 일부 발췌]

# ‘탈석탄법’ 국회 발의... 통과 즉시 삼척 발전소 허가 취소 가능

“온실가스 배출 줄이려 석탄발전 퇴출, 세계적 추세”

강원도 삼척에서 지어지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탈석탄법’이 17일 발의됐다. 지난해 9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을 취소하도록 법을 제정해달라’는 시민 5만명의 국민동의 청원이 제기된 지 1년 만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류호정·배진교·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탈석탄법 제정을위한시민연대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탈석탄법)’ 국회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표 발의자인 류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김성환·김정호·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탈석탄법’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중단하고, 이에 따라 손해를 보게 될 사업자 보상과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 개시를 신고하지 않은 발전 사업자의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전기사업의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법안 4조)는 내용과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의 신규 허가를 금지한다’(5조)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되지만, 석

탄발전사업자에 대한 전기 사업 허가 철회를 담은 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4조를 법 공포 직후 바로 시행하도록 한 이유는 강원 삼척에 지어지고 있는 2100MW(메가와트) 규모의 민자 석탄발전소 때문이다. 삼척블루파워는 오는 10월과 내년 4월 각각 1호기와 2호기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는 10월 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삼척블루파워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21대 국회에 이미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에너지전환 지원법이 (발의 돼)있지만 3년째 계류된 상태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당장 올해 10월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삼척블루파워를 막기 위한 ‘포인트 입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흐름에 있는데, 오히려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는 모순을 비판했다.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기후위기 때문에 전세계가 석탄화력발전소를 꺼내고 있다”며 “신규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그야말로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하 생략)

[출처 : 한겨레 일부 발췌]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 개최 무산

환경단체 “변경안 즉각 폐기해야”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물관리위원회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하고 물관리계획 변경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제1차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열려던 공청회가 무산됐다. 환경단체는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제1차 국가 물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중략)

한국환경회의,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 행동 등은 이날 공청회장에서 “공청회 개최에 앞서 계획 변경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도 없었다”라며 공청회 개최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에 앞서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회의, 의견 수렴 등이 있어야 했는데, 이런 절차도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중략)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이날 공청회에서 알리고자 했던 제1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의 골자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관련 추진 과제를 삭제하는 재자연화 정책 폐기다. 기존 계획에 있

던 용어 ‘자연성’은 ‘지속가능성’으로 바꾼다. “중적(댐, 보 등)·황적(제방, 도로 등) 인공 구조물 설치로 하천 상·하류 생태계 단절, 자연경관 훼손 등 문제 야기”는 “파손·방치된 하천 시설로 인해 수생태계 건강성 저하, 자연경관 훼손 등 하천의 지속가능성 우려”로 대체한다. 국가 물관리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중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 행동, 한국 환경 회의는 25일 성명을 내고 “4대강 사업의 재앙적 후과를 반전시킬 기회를 공중분해 시키고 하천 관리 패러다임을 20~30년 전으로 후퇴시키려는 것”이라며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전 지구적 흐름에 부합하는 국가물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라고 주장했다.

[출처: 경향신문 일부 발췌]

## (사)당진환경운동연합 2023년 8월 일반회계 수입 지출 결산 보고

(단위: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이월금	전월 이월금	15,997,488	인건비	급여	4,600,000
회비	개인회비	5,265,000		퇴직적립금	415,280
	법인회비	70,000		사회보험료	529,290
	계	5,335,000	계	5,544,570	
일반후원금	개인후원	-	경상비	복리후생비	-
	법인후원	-		세금과공과금	141,470
	계	-		소모품비	-
사업후원금	사업후원금	-		지급수수료	314,380
	계	-		기타운영비	122,900
단체지원금	단체지원금	-	계	578,750	
	계	-	사업비	기후에너지사업	897,900
보조금	기타사업	-		생태보전사업	-
	계	-		생활환경사업	43,000
지원금수입	지원금수입	-		조직 회원사업	914,060
	계	-		모금사업	92,000
기타수입	기타수입	-		연대사업	462,103
	계	-		기타사업	-
전입금	전입금	-	계	2,409,063	
	계	-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비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	-
차입금	차입금	-		계	-
	계	-	이월액	이월액	12,800,105
		계		12,800,105	
월수입 총계		5,335,000	월지출 총계		8,532,383
수입 합계		21,332,488	지출 합계		21,332,488

# 그것이 알고 싶다! 과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도 안전한가?

1

## 일본 정부가 바다에 버리려는 방사성 오염수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원자로에 주입되는 냉각수+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녹아내린 핵연료가 만나 만들어진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입니다. 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정화처리한 뒤, 원전 부지내 저장탱크에 약 132만㎥ 보관중입니다. (2023년 3월 기준)



2

## 왜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건가요?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냉각수 투입으로 계속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일본 정부는 현재 저장 탱크에 담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보관 중인데, 이를 더 이상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에 방류하려는 것입니다.



3

## 후쿠시마 오염수는 정말 더 저장할 곳이 없나요?

일본 정부는 2022년이 되면 저장할 곳이 없어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후쿠시마 인근 제염토 보관 부지+현재 폐로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2원전 부지까지 활용한다면 오염수 장기저장은 충분합니다. 오염수를 장기 보관한다면 오염수 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독성도 줄어듭니다.



4

## 후쿠시마 오염수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물과 같아 괜찮다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배출수는 전혀 다릅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는 냉각수가 연료봉에 직접 닿지 않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는 녹아내린 핵연료에 직접 닿아 방사성 물질이 녹아들어있습니다. 냉각수와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독성 또한 비교할 수 없습니다.



5

## 일본 정부가 ALPS(다핵종제거기)로 방사성 물질을 2차 정화한다는데, 믿을 수 있나요?

ALPS에선 이미 여러 결함이 나타났고, 방사성 물질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합니다. 요오드129·루테튬106·안티몬125·스트론튬90 등 방사성 물질의 제거 성능이 부족합니다. 애초에 삼중수소와 탄소14 같은 핵종은 걸러내지 못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차 정화 작업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6

##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면 우리 바다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되면 후쿠시마 앞 바다를 비롯해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우리 바다에도 일부 방사성 물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일본 가나자와대학 이노마타 교수는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류된 방사성 물질이 남중국해를 거쳐 동해로 들어오는데 약 7년 정도가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 그것이 알고 싶다! 과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도 안전한가?

7

##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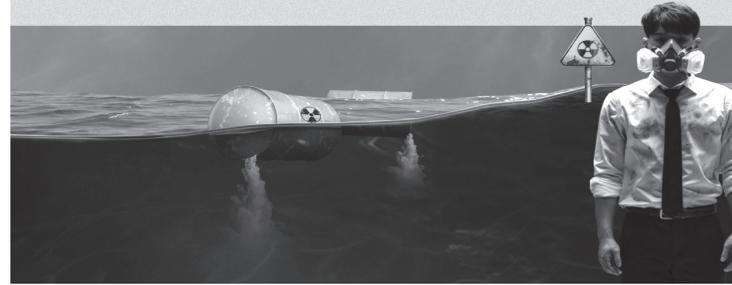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 버려진다면 환경과 인간에게 치명적인 수밖이 없습니다.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의 켄 부셀러 박사는 "방사성 물질은 종류에 따라 해양에서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방사성 오염수에 포함된 탄소14의 경우 삼중수소와 비교하면 생물에 축적되는 농축 지수가 5만 배에 이르고, 코발트60의 경우는 삼중수소보다 해저 퇴적물에 30만 배나 더 잘 결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

## 일본산 수산물에서 아직도 방사성 물질이 나오나요?

다양한 품목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됨은 물론, 한국이 수입을 금지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에서 그 외 지역보다 세슘이 높게 나타났고 있습니다. 2022년 일본산 농수축산 방사능 오염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일본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약 21%에서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2022년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300Bq/kg, 1400Bq/kg의 세슘 검출된 만큼 후쿠시마 수산물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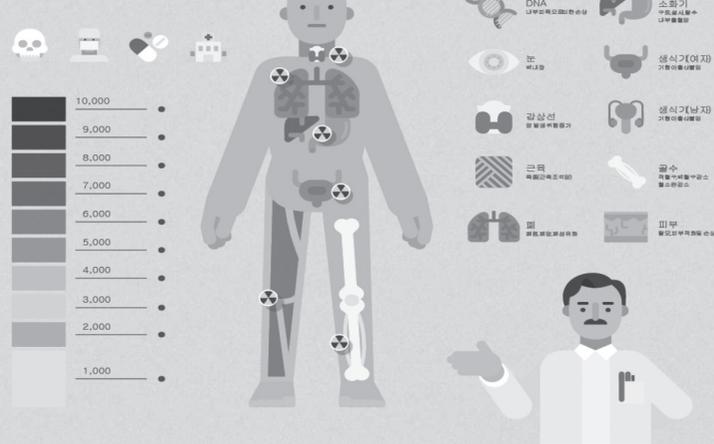
## 방사성 물질이 주는 건강 피해는 무엇인가요?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면 유전자와 결합하여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 뇌종양, 선천성 기형,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삼중수소가 조류, 해초, 갑각류, 어류 등 해양생물에게 축적됩니다. 그 해산물을 사람이 먹으면 뇌종양, 선천성 기형, 암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트론튬90은 갈슘과 유사해 뼈에 잘 흡착되고, 다량 축적시 골수암,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0

## 방사능피폭 영향



11

## 원전오염수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태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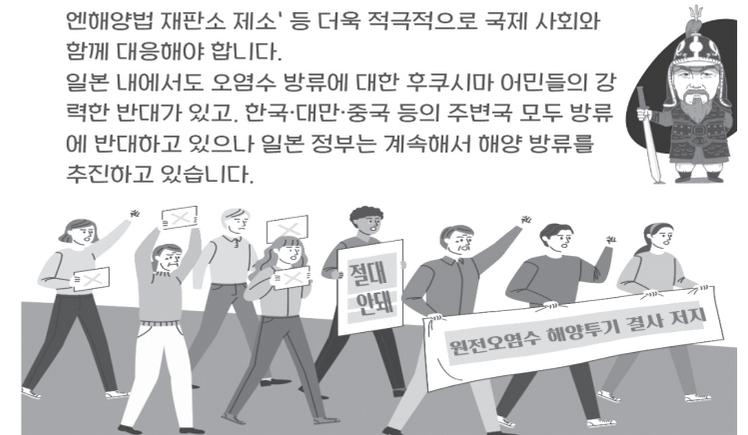
G7 환경장관회의에서 일본은, '국제사회도 해양방류를 지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면전에서 독일장관으로부터 면박을 당했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이번 G7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서도 이어져 옮겨버자격으로 참가하는 윤석열정부도 찬성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IAEA는 지지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반대를 위한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12

##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방법은 없나요?

UN 해양법 협약이나 런던 의정서에 해양 오염과 원자력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있는 만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는 '유엔해양법 재판소 제소' 등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 사회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후쿠시마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고, 한국·대만·중국 등의 주변국 모두 방류에 반대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 8월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8월 8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8월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2023년 후원의밤 준비 기획단 1차 회의

8월 24일 후원의밤 준비를 위한 1차 기획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제13차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당진 캠페인

8월 14일 신터미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캠페인과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 당진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제2차 정기 회의

8월 24일 당진시청에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제2차 정기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에너지의날 기념 당진기후 행동

8월 22일 에너지의날을 맞아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함께 탈석탄과 탈원전을 외치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당진시 제2차 지역에너지 계획 검토 회의

8월 30일 당진환경연합 사무실에서 당진시 제2차 지역에너지계획 검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 01 일반사업

- ✚ 9/01 공동의장단 회의 - 사무실
- ✚ 9/02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2차 범국민대회 - 서울 세종대로
- ✚ 9/06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 회의 - 온라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캠페인 - 터미널 입구  
'방사성 오염수와 먹거리 안전' 강좌 - 에코생협 당진점  
9월 정기운영위원회 회의 - 에코생협 당진점
- ✚ 9/07 에코생협 생활재 위원회 회의 - 에코생협 당진점
- ✚ 9/08 당진시 제2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자문회의 - 당진시청
- ✚ 9/09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3차 범국민대회 - 서울 세종대로
- ✚ 9/11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캠페인 - 터미널 입구
- ✚ 9/13 정의로운 전환 당진 사회적대화 준비 회의 - 사무실
- ✚ 9/14 환경연합 전국사무국처장단 회의 -미정
- ✚ 9/15 충남환경연합 운영위원회 회의 - 천안
- ✚ 9/16 해변정화활동 '쓰담 쓰담' 3회차 - 석문방조제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4차 범국민대회 - 서울 세종대로
- ✚ 9/18 당진에너지전환포럼 '히트펌프' 세미나 - 당진공익활동지원센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캠페인 - 터미널 입구
- ✚ 9/19 923기후정의행진 선포 기자회견 - 충남도청  
철강네트워크 회의 - 온라인
- ✚ 9/20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단 회의 - 미정
- ✚ 9/23 923기후정의행진 - 서울 세종대로
- ✚ 9/26 충남 정의로운 전환 포럼 의정토론회 - 내포혁신플랫폼  
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전체회의 - 온라인

#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회원소모임 난리부르스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9/26(화) 11시30분

#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송산·석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탄정 간 345kV 송전선로

##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은구 고낙현 고락일 고재만 고중민 광성심 광영복 구경숙 구경완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오화 권중원 김호중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기동 김기재 김길자 김남조 김남철 김달식 김대원 김동길 김동진 김동환 김두현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병호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병구 김병민 김보담 김본겸 김봉균 김봉운 김봉일 김석규 김석래 김신규  
김성훈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삼 김영자 김예나 김용준 김윤각  
김윤태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용열 김용영 김일권 김재성 김재진 김정근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진 김중균  
김종래 김종범 김주석 김지환 김 진 김진남 김진용 김철환 김춘이 김필배 김하정 김향곤 김현기 김현림 김현용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희 김홍환 남정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엽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명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연 박경일 박근성 박기남 박기행 박미상 박미현 박보균  
박상길 박상준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례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용상 박윤숙 박은자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인순 박정연 박종대 박종화 박창순 박춘희 박현순 박호완 박희선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배국희 배병호  
백윤경 백종렬 서동우 서영순 서지현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종선 손창원 손화웅 송노섭  
송병연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운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중 송한결 신경상 신미희 신양용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심주현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효권 안효신 양근호 양영진 엄기태  
오동원 오복환 오의환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유경자 유영석 유종준 유현경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기영 윤도현  
윤병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정득 윤주홍 윤혜선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종  
이능용 이대우 이동준 이동현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상현 이새봄 이석규 이선이 이승호 이영근 이영길 이영수 이영우 이용석 이원복 이원석 이 월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화 이재훈 이정환 이정훈 이종관 이종필 이종학 이준성 이준호 이증영  
이창규 이철재 이충휘 이해선 이해운 이현숙 이해슬 이호경 이 훈 이홍숙 인광교 인만교 인현욱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경배 전종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병준 정본환 정봉식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종환 정중섭 정치용 정희구 조강호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순형 조용재 조한영 주영권 지광선 차기능 차일병 채중국 천선휘 천혜경 최강부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기 최성욱 최세호 최연이 최오상 최원택 최원근 최은진 최인호 최일규 최장열 최재혁 최종길  
최종원 최지용 최창용 최혜인 최효진 팽말숙 하용봉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홍 한문기 한미경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원희 한청수 허권섭 허인욱 현 민 호상기 홍기석 홍두표 홍심선 황성렬 황영호 황푸름  
(주)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김현기) 글로벌천막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당진천주교회 대성종합공구 별나라어린이집  
보덕사 상록인쇄사 세실리아요양센터 영축농장 율곡어린이집 정우건설(주) 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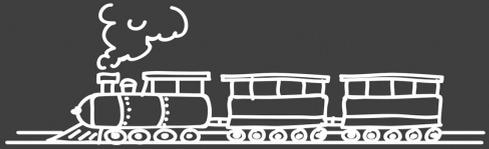
※ 9월 5일까지 입금기준입니다.

# 923 기후정의행진



# 기후정의는 장항선을 타고

## 위기를 넘는



### 2023년 9월 23일(토)

923기후정의행진 참가단 열차  
무궁화호 1556 1호차  
전석(72석) 임차 완료

익산역(출발) 08:57-서천 09:33-대전 10:01-홍성  
10:31-삼교 10:42-예산 10:50-아산 11:22-천안  
11:29-용산역(도착)12:42

참가문의: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 041-355-7661

### “시민과 함께하는 해변 환경 정화 활동”

# 다함께 ☆ 우리 바다 쓰담쓰담 ☆

누군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로 바다는 몸살을 앓고 힘들어합니다. 바다를 지키고 깨끗한 지구의 환경을 만드는 행동에 당진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행사일정 |

- 당진 문예의전당 주차장(9시출발, 12시 도착)
- 봉사시간 2시간 20분 적용됩니다.
- 참가인원 선착순40명
- 모자와 텀블러를 준비해주세요.
- 식사(도시락)와 간식 제공해 드립니다.
- 일정은 날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날짜 | 2023년 9월 16일(토) 오전 9시 | 장소 | 석문방조제

| 참가문의 | 당진환경운동연합 041-355-7661

당진환경운동연합



나눔과 도움을 이어주는 정경다리.....  
공익재단법인 지속가능 상생재단

※이 소식지는 상록인쇄사의 도움을 받아 발행되었습니다.